진료 대기만 4시간…독감 유행에 병원 '북새통'

광주 1000명 당 환자 19.4명으로 급증…백신 부족사태 우려
일부 예방주사 동나고 비용 천차만별…고물가 속 시민 한숨만

광주시 동구에 사는 장혜민(여·30)씨는 지난 21일 목덜미 뻐근함과 함께 인후통을 겪었다. 지나가는 통증일 거라 방치했지만 오한에 몸살 기운까지 느꼈다. 병원을 찾은 장씨는 A형 독감을 판정받았다. 장씨는 해열 링거를 1시간 가량 맞고 나서야 열이 떨어져 귀가할 수 있었다.

이날 장씨가 찾은 병원에는 독감 때문에 수액을 맞고 있는 환자들로 가득찼다.

직장인 장기영(50)씨도 지난 22일 A형 독감을 된통 앓았다. 근육통으로 시작된 증상은 식욕 저하와 기침, 무기력으로 이어졌고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오한이 계속됐다. 장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진료를 받고 해열제와 주사를 처방받았다.

광주·전남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병원마다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 내과와 소아과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광주지역 일부 병원의 경우 독감진료 대기만 4시간에 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예방주사가 동이날 지경이다. 하지만 백신 예방접종이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이라는 점에서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에 코로나 검사까지 하면 비용은 5만~7만원까지 증가해 고물가에 어려운 지역민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2월 2주차(50주·12월 8일~1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수는 외래환자 1000명 당 19.4명으로 전국 평균인 13.6명을 웃돌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의원급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8.6명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를 내린다. 이에 지난 19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광주지역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47주 6.4명, 48주 7.7명, 49주 12.5명으로 매주 급증하고 있다.

호흡기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자 시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찾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도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맘카페에는 '진료부터 처방전을 받기까지 병원에서만 4시간을 기다렸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약국에서도 타미플루약이 동나고 있다고 한다. 약국에서 하나 남은 타미플루를 겨우 받아왔다', '아이가 아픈데 아동병원 대기가 너무 길어 동네 병원에 왔는데도 대기자만 23명이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독감 유행에 따라 백신 예방백신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지역 거점병원보다 비용이 저렴한 2차 병원의 경우 올해분 독감 예방 주사 수량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2차병원의 어르신 무료 독감 접종 주사 수량은 진작 바닥이 났고 북구 풍향동과 광산구 수완동의 2차 병원 유료 주사분도 이미 올해 맞을 수 있는 분량은 다 떨어지고 없다.

전남대병원과 기독병원은 물량이 남아있으나 조선대병원은 24일 기준 10명분 밖에 남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단순 감기라고 생각해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원영 우리들내과 원장은 "요즘 유행하는 A형 독감의 경우 독감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서둘러 맞는게 좋다"며 "이미 독감에 걸려 고열 등이 동반된다면 증상을 보인 지 48시간 내에 병원 검사를 받고 항 바이러스제를 먹어야 약효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예방접종 가격이 병원마다 달라 지역민들은 혼란 스러워하고 있다. 병원에 따라 같은 백신을 맞고도 최대 두 배의 돈을 더 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물가 상승으로 병원에서 구입하는 백신 원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병원 운영을 위해 부득이 가격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어린이집에 산타 왔어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산타복장을 하고 깜짝 방문한 학부모가 준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료 선원 폭행해 숨지게 한 선원 3명 1년6월~5년 선고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 방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선원 2명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상습 폭행 혐의는 인용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장 B(45)씨와 함께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동료 선원 C씨를 폭행하고, B씨가 지난 4월 30일 C씨를 숨지게 한 과정에서 살인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4월 선원 C씨를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급기야 지난 4월 30일 숨지게 하고 다음 날인 5월 1일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른 선원들은 둔기 등으로 구타했다. 잠도 선실 밖에서 자게 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편, 선장 B씨는 별도로 기소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온라임 게임중 상대 부모 성적 비하 대법 "성적 욕망 인정하기 어려워"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성적 욕망'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했다는 점에서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환자 정보 도용 마약류 약물 처방 받은 간호사 징역형

30대 간호사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사용해 마약류 약물을 처방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여·3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타인 명의로 마약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두 10회에 걸쳐 200여정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국민건강보험액이 소액이고 A씨가 실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변호사 선임해 줄게"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B씨에게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류사무를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 서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나 변호사비가 500만~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소개비와 중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에 다른 교통사고 건으로 벌금형 승소한 적도 있었다고 B씨를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는 재판결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내겠다"고 말하며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법률사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